



네 생각은 어때?

■ 유대인이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마타호세프

가족주의는 한국인과 유대인 두 집단의 교육열, 학습 욕구를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가족주의 문화의 영향력이 두 집단 안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면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낳았다. 한국인과 유대인은 모두 가족주의 문화라는 훌륭한 자원을 갖고 있고 다른 민족들보다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다. 그럼에도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유대인이 한국인보다 더 많은 성공을 보이는 것은 유대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자기주도 학습에 능하고 자존감도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오로지 부모들의 지시에 따



엄마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유대인 아이. 유대인 부모나 교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마타호셰프'로, "네 생각은 어때?"라는 뜻이다.

르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단시간에 빠른 학습효과를 거두지만, 스스로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창의성이 부족하고 남의 지시 없이는 공부하지 못한다. 또한 스스로 답을 찾지 않고 누군가가 자신의 질문에 대해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공부는 창의성을 중시하는 미래 사회에서 결코 성공적인 교육 모델이 될 수 없다. 다소 더딜지라도 아이가 스스로 사고하고 선택하며 이루어 나가도록 양육해야 아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유대인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은 학교 선생님도, 종교적 지도자인 랍비도 아닌 그들의 부모다. 이스라엘의 교육열을 제대로 느끼려면 학교나 사교육 시장보다 그들의 집, 가족 문화를 먼저 살펴야 한다. 유대인 아버지들은 안식일에 아이들과 식탁에 앉아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필요한 경우 한 명씩 따로 불러 대화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의 단절이란 있을 수 없다.

유대인은 자녀들에게 토라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핵심부터 시작한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만 해도 613개나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그래서 그들은 십계명부터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가르친다. 십계명만 지켜도 토라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유대인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거의 없다.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다. 즉 쌍방을 전제로 한다. 일방이나 쌍방이냐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다. 우리는 주로 교사나 부모가 아이를 가르친다는 생각에 간혀 교육을 일방적인 가르침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실천해 왔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결코 교육이 일방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화도 쌍방이고 토론도 쌍방이다. 듣는 것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묻는 것도 묻는 사람과 질문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자녀교육에서 이 한 가지만 명심해도 많은 것들이 해결된다. 우리는 자녀의 욕구나 마음에는 전혀 관심 없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가르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주는 가르침은 자녀에게는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모두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자신과는 상관 없는 것으로 들린다. 가르침이 어느 순간 잔소리가 되는 것이다.

질문은 아는 게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듣거나 읽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토라와 탈무드를 먼저 정해진 부분부터 소리내서 읽는다. 소리를 내서 읽으면 자동적으로 듣게 된다. 내용을 들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의문이 생긴다. 그래서 질문이 만들어진다. 때문에 질문은 아이가 먼저 하게 된다. 설명을 들은 내용이나 읽은 내용에서 궁금한 것들을 부모에게 묻는다.

질문을 할 때는 핵심을 정리해서 한다. 질문을 하면서 장황하게 말하면 질문의 초점이 흐려진다. 무엇을 묻는 것인지조차 모르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질문을 간결하게 하게 한다. 질문하는 요지를 분명하게 정리하여 질문하게 한다. 이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세미나나 강의 등에서 질문할 때 무엇을 묻는지 알 수 없도록 장황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런 훈련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질문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질문을 받은 사람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질문에 대해 바로 답변하게 되면 생각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다시 질문하는 것이다. 질문으로 답을 하는 것이다.

유대인 부모나 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가 ‘마타호세프’이다. 이것은 “네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은 뭐니?”란 뜻이다. 아이가 질문한 것에 대해 아이의 생각을 다시 물어보는 말이다. 또 한 가지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니?”이다. 이것 역시 질문하는 아이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다.

유대인 부모나 교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말에 모두 ‘생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녀나 학생이 생각하는 것을 중시한다. 공부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하는 것이다. 교육 역시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고력이 바로 생각하는 힘이다.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고력으로 아이비리그를 30퍼센트 차지할 수 있고, 노벨상을 30퍼센트 거머쥔 수 있으며,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사고력은 지혜이자 안목이고, 통찰력이자 창의성이다. 단순한 지식은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 세상이다. 지금은 이런 정보나 지식을 어떻게 엮느냐, 정보의 홍수에서 어떻게 쓸 만한 정보를 골라내느냐가 문제이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안목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다. 같은 책이나 영화를 접하더라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질문이고 토

론이다. 어린 아이에게는 질문이고, 커 가면서는 토론이며, 더 성장하면 논쟁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의 질문을 받으면 정답을 알려 주거나 설명하지 않고 다시 질문한다.

“네 생각은 어때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 말은 생각 없이 할 수 없다

우리는 강의를 듣거나 설명을 들을 때 얼마든지 판생각을 하거나 졸 수 있다. 중 고등학교 교실에서 자는 학생이 많은 이유는 계속 수동적으로 듣다 보니 지쳐서인 경우가 많다. 뇌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때 집중하지 못한다. 학생들이 교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적는 똑같은 공부를 10년 넘게 하다 보면 뇌는 자동적으로 지루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졸게 된다.

그런데 말을 할 때는 생각 없이 결코 할 수 없다. 말과 생각은 직결된다. 생각한 것이 말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을 하게 해야 한다. 아이가 말하는 것이 어리숙하고 답답하고 엉뚱하다고 해서 그 말을 부모가 가로채 설명하고 정답을 알려 주면 아이는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 다시 말해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다. 자신이 아무리 말을 해도 결국 부모가 정답을 알려 주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데, 아이가 굳이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말을 하다가 부모에게 가로채이는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 입이 닫히는 순간 생각이 닫힌다. 부모의 지시와 정답 제시만 기다리게 된다.

아이들이 말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엉뚱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생각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다. 어른이 가르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잔소리가 될 수 있지만, 아이가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 것이 된다.

아이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으면 아이는 떠들떠들 이야기한다. 듣기 답답한 부모는 설명해 주고 가르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해진다. 이 고비에서 유대인 부모는 인내해 내고, 한국 부모들은 못 참고 먼저 입을 여는 것이 차이다. 다시 말하지만 아이가 직접 한 것만 아이 것이 된다. 아이가 직접 한다는 것이 행동이나 실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행동이나 실천보다 앞서는 것이 말이고, 말보다 앞서는 것이 생각이다. 아이가 직접 한다는 것은 말을 직접 하는 것도, 생각을 직접 하는 것도 포함된다.

부모는 아이가 아무리 답답한 말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해도 끝까지 들어주어야 한다. 말을 다 듣고 나서 논리적 허점이나 엉뚱한 것들에 대해 질문을 만들어 물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자신의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서 말하게 된다.

아이에게 정서와 사회성을 길러 주는 방법은 감정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선 아이와 같은 단어와 감정으로 이야기를 반복한다. 아이들은 반복을 통해 배우기 때문이다. 아이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새롭고 처음 접하는 것이다. 그것을 자주 반복해야 아이 것이 된다. 그래서 아이는 반복을 좋아한다.

아이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는 좋은 방법은 아이가 선별하는 단어를 귀담아듣고 아이가 사용한 단어를 살짝 바꾸어 말하는 것이다. 아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반

복하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말을 덧붙이는 식이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느끼는 것을 부모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 자신의 놀이를 부모가 존중해 주고 자신 역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이때 부모는 아이가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억양이나 몸짓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부모의 정서적 반응은 아이의 말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아이는 자신의 행동, 말, 감정의 중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 자신이 한 말을 부모가 다시 말하는 것을 듣고 부모의 반응을 느끼는 동안 아이는 자신감을 얻고 또래와도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말은 주로 부모에게 듣는 말이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자라기 때문에 그 말투와 억양, 정서 등을 그대로 배운다. 화가 나면 목소리부터 커지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소리부터 지르고 아이 앞에서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목소리가 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아이가 된다. 어린 아이는 어른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소리의 적절한 크기와 높이, 억양 등을 보여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아이에게 말할 때는 너무 빠르거나 시끄럽지 않은 침착하고 안정적인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올바른 억양이나 적당한 크기의 소리로 차근차근 말을 하게 된다면 또래는 그 말을 귀담아 듣게 될 것이다. 부모에게 배우는 말투는 아이의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나누기

하브루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쉽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브

루타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다. 이야기를 나누기는 쉽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쉽지 않다. 1분 정도 대화하기는 쉽지만,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수다를 떨기는 쉽지만 하브루타의 진정한 목적인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를 나누기란 쉽지 않다.

하브루타는 ‘이야기 나누기’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생각하는 이야기 나누기’다. 단순한 수다는 아이의 뇌 발달과 크게 상관이 없다. 뇌가 움직이고 격동해야 진정한 하브루타다. 하브루타의 목적은 사고력 계발에 있기 때문이다. 사고력이란 생각하는 힘이다.

아이들이 생각하도록 만들려면 질문과 토론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질문을 받게 되면 대답을 해야 하고, 생각 없이는 대답할 수 없다. 토론은 즉각적인 질문과 답변, 그리고 반박과 증거 등을 바로바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치열한 생각이 필수적이다. 논쟁은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논쟁은 논리가 있는 토론이기 때문에 근거가 확실해야 하고 논리가 탄탄해야 한다. 이런 논쟁은 치열한 사고를 하지 않으면 잘하기 어렵다.

아이들은 질문이 많다. 그런데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아이가 무엇이든 궁금해할 때가 질문과 토론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시기이다. 자녀를 영재로 키우는 엄마들은 아이들의 질문이 집요해지면 호기심을 충족시킬 적절한 방법을 찾는다.

실제 연구에 의하면 신생아 때부터 엄마가 말을 많이 건넨 아기가 그렇지 않은 아기보다 언어 능력이 월등할 뿐 아니라 지능지수,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도 뛰어났다. 또 아이가 자라면서 읽기 능력, 쓰기 능력, 판단 능력도 향상된다고 한다. 부모들이 되도록 아이와 얼굴을 마주 보고 직접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이의 나이와 상관 없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언어교육 방법은 부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고 대화이고 소통이다. 하버드 대학교 아동 언어학자 캐서린 스노 교수는 아이들에게 말을 더 많이 하는 부모, 아기와 상호작용을



이스라엘 어디서나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유적지를 돌아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부모, 아기들과 더 밀도 있게 대화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더 뛰어난 언어능력을 가진다고 했다. 아이는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훨씬 전부터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이에게 계속 말을 걸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은가? 물론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고르지는 않을 것이다. 또 날카롭게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어떤가? 그런 사람 역시 내키지 않으리라. 이미 자기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나 정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연히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떨까? 아이들은 어떤 부모와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 자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부모일까? 아니면 자녀의 말을 잘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모일까? 아이들도 똑같다.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부모를 원한다. 모든 것에 대해 가르치려 하고 교훈을 주려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모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